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의 경험

박성학* · 최미혜** · 정연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 대가족 대신에 산업사회의 핵가족이 기본단위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 임종, 사별의 문제가 가족을 주변으로부터 한층 더 고립시키고 있으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가족 한 명을 잃은 고통은 여기에 상응하여 심할 것으로 본다(대한간호협회, 1988). 특히 한국의 40-50대 중년남성의 사망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는 한국의 중년 남성만이 갖는 가정과 직장, 나아가서 사회에서의 각종 중압감 및 스트레스, 음주 및 식생활 등 정신적, 신체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이용만, 1993).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간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하는 위기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다(Bankoff, 1983).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死別)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타격을 주는 보편적인 위기이기에, 사별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심리적인 절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매우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나타

낸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다른 어떤 상실보다도 한 여성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며 여성의 사회환경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뿐 아니라 정서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계를 제거시키는 등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주기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누구도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미망인이 되는 경험은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Bankoff, 1983). 갑작스런 예기치 못하였던 남편의 죽음은 미망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trauma)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슬픔은 장기화(prolong grief)되고, 심지어는 배우자 사망후 4년이 지나도 갑작스런 죽음의 충격(shock)으로 인하여 저하된 미망인의 대처능력은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Sanders, 1980). 따라서 죽음의 양상(mode)은 미망인 적응의 중요한 예측 변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Parkers, 1975).

Lundin(1975)은 갑작스런 죽음과 예기된 죽음을 경험한 두 집단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질환(somatic and psychiatric illness)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하였다. 사별후 2년간을 연구한 Sanders(1980)의 종단적

* 정형물리치료학회 서울시회장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연구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한 가족이 더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갑작스런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념과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어 이 세상에 대한 신념과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준비없이 찾아온 남편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절망을 경험하는 배우자들은 멀리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망인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전인적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력과 절망적인 삶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의 삶의 경험을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II. 선행연구 개관

건강한 몸으로 생활을 영유하던 사람이 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약간의 증상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하는 것을 돌연사라 하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가 미결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문국진, 1994). Kübler Ross(1973)는 그의 연구에서 임종기의 환자는 대부분 다섯단계의 심리상태를 거친다고 하며 이러한 단계는 사별을 맞은 그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항상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르지는 않으며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Lewandowski & Jones(1988)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고 하였다(김순옥, 1992). 가족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마음에는 여러가지 감정, 즉 공포, 슬픔, 분노, 절망, 원한, 체념, 반항, 동정, 허욕, 무력감 등 어떠한 다른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김영자, 1972). Clayton et al.(1972)은 가족의 35%가 임종에 따른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가족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며 살던 중요한 사람을 잃는다는 상실감과 환자의 치료과정 및 상태에 대한 걱정,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신이 무기력한 느낌, 가정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이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변화, 자신의 인생목표와 동기를 변경해야 하는 일 등에 새로이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의 죽음으로 배우자가 경험하는 역할과 책임의 증가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어려움이다. 부부의 역할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생계비 벌이 역할을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거의 80%이었다(최재석, 1986). 옥선화(1982)는 가족의 역할 내용을 가사활동, 경제활동, 대외활동, 자녀교육활동, 여가활동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집수리를 제외한 가사활동 영역은 주부가 수행하였으며, 경제활동에서는 남편의 70%가 주소득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고, 김효숙(1988)은 조사연구에서 남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 순위는 생계 담당자, 경제활동, 여가활동, 청년기 자녀의 사회화, 아동기 자녀의 교육, 대외활동, 유아기 자녀의 양육, 가사활동 역할영역의 순이라고 하였다. 이성희(1986)의 연구에서는 경제, 가사 영역은 주로 부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으며, 자녀교육, 자녀 양육의 영역은 주로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Bedsworth & Molen(1982)은 배우자는 자신의 인생목표와 동기를 변경해야 하는 것, 배우자를 잃는 것, 경제적인 불안정, 가족내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 가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되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족원이라고 하여 남편의 죽음으로 배우자가 수행해야 할 대리역할의 영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혜진(1980)은 죽음과 임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도 다양하여 임종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Hinton : 1974., Oken : 1961., 등), 사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rudick & Dibner : 1961., Maddison & Walker : 1967. 등),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Beigler : 1957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Jeffers et al : 1961., 김귀분 : 1978.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hneidman : 1971., Bluestei : 1975. 등), 그리고 의료적 종사자 중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Glaster & Strauss : 1965., 유계주 : 1974. 등)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Fitts & Ravdin : 1953., 이희 : 1979.)등 대상자인 피험자의 종류가 다양하나 배우자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예기치 못한 남편의 죽음은 어린 자녀들과 불안정한 경제력,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주위 및 사회의 지지부족 등으로 배우자는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를 좀더 진지하게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 근거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사고로 남편을 잃은 경험을 가진 수도권에 거주하는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36세부터 51세로 평균 연령이 42세이며, 결혼생활 기간은 3년에서 12년까지로 평균 7년이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명, 고졸 8명, 중졸 2명, 종교는 기독교 7명, 천주교 1명, 불교 1명이고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대상자의 비율은 9:2이다. 사망전의 생활정도는 상이 2명, 중이 5명, 하가 4명이었다. 사별기간은 5년미만이 7명이고 5년이상 10년미만이 4명으로 평균은 7.8년이다. 남편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5명, 심장마비 1명, 뇌출혈 1명, 중독 2명, 추락 1명이었고,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이 즉사 5명, 24시간내가 2명, 48시간내가 1명, 72시간내가 1명, 1주일내가 2명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4명, 운전기사가 2명, 개인사업이 3명, 일용근로자가 2명이었다. 남편 사망당시 나이는 30대가 4명, 40대가 6명, 50대가 1명으로 평균은 39세였으며, 아내의 나이는 20대가 2명, 30대가 7명, 40대가 2명으로 평균은 31세였고, 자녀의 나이는 남자아이는 평균이 5.5세이고, 여자아이는 7.2세였고, 남·여 평균 나이는 6.3세였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4명, 2명인 경우가 5명, 3명인 경우가 2명이었다.

2.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4월 8일까지 총 116일이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권내 각각 1개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책임간호사와 서울시 1개 구청의 가정복지과 책임자 및 본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미망인과 모자가정의 주

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은 후 우선 거부감과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본 연구의 목적을 적은 서신을 총 15명에게 보냈고, 약 1주일이 경과한 후 부터 각 가정을 1차 방문하여 면담을 허락받은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가 편리한 대로 하였고 대상자가 주로 낮시간대는 근로를 하는 관계로 저녁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장소는 모두 대상자의 집을 이용하였고, 자녀와의 동석을 피하여 독립된 방에서 하였다.

면담을 실시할 때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로 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연구목적 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연구 취지를 재인식시켰다. 면담 방법은 본 연구자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해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자의 속기술 결여와 면담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고 원래 그대로의 표현을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면담자 앞에서 녹음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그대로 기술하는데 면담자 1인당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도중 분위기가 격앙되어 서먹하거나 슬픔이 복합해 눈물을 계속 흘려 면담이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면담의 계속성과 안정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로 자녀들의 학교생활 등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Strauss & Corbin(1990)의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근거이론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선행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자료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면담내용을 반복해 들으면서 면담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결과 문장에 표시를 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 2) 수집된 자료 중 의미있는 결과 문장을 개방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류하고 비교,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여 각각에 의미를 붙이고 그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그 빈도와 강도를 확인하였다.

- 3) 각 범주와 하위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요약한 후 이들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고 핵심 범주를 발견하였다.
- 4) 각 범주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근거 이론들에 맞춰 범주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 5) 범주화의 내용과 요약 및 남편을 사별한 배우자의 절망감에 대한 연구과정을 기술하고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진술을 하였다.
- 6)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1) 개념

사고로 남편을 잃은 경험을 가진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망소식을 듣거나, 사망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겪게되는 삶의 경험을 연구 분석한 결과 81개의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각 개념들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이상한 예감, 악몽, 무소식, 뒤늦은 연락, 사망소식, 이상한 숨소리, 주검, 운명함, 사고남, 과다출혈, 피투성이, 쓰러짐, 충격받음, 당황함, 불안함, 무서움, 정신혼돈, 기억안남, 깜깜함, 졸도함, 무시당함, 억울함, 원망, 화남, 기막힘, 막막함, 멍함, 믿어지지 않음, 자리빔, 허전함, 삶의 의미상실, 자살충동, 희망상실, 자녀들 수와 나이, 주위지지 부족, 친정지지 부족, 시댁지지 부족, 친정지지, 시댁지지, 주위지지, 옆려해 줌, 위안 됨, 신을 의지함, 경제력, 사회경험, 신념강화, 정신차림, 궁리함, 직업가짐, 엄한 자녀교육, 다짐함, 참음, 생활력 증강, 희생자오, 지침, 병듦, 지위하락, 힘듦, 궁핍함, 기억장애, 힘에 부힘, 힘든 양육, 책임증가, 재혼권유, 죄스러움, 울음, 아쉬움, 측은한 마음, 가슴아픔, 어리석음, 죄스러움, 울화참, 숨김, 멧힘, 간직함, 외로움, 보고픔, 자궁심, 극복함, 이해함, 바램등 81개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81개의 개념이 도출된 원자료는 가급적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제시하였다.

* 놀러 갔다 왔더니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구.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에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

- 나 하고 생각하는 데 예감이 이상해. (이상한 예감)
- * 꿈에 애 아빠 꿈을 꾸는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꼭 평상시 처럼 죽은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말하고 그렇게 막 시달리더라고요. (악몽)
 - * 본인이 전화를 안해서 나는 분명 이 사람은 못 볼 지경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무소식)
 - * 새벽 3시에 다친걸 나는 24시간만에 연락을 받은거야. 형님을 원망했지. 형님이 가장 먼저 알았으면서도 나한테 연락도 안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뒤늦은 연락)
 - * 저녁에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와요. 몇번을 했었다며 영안실인데 부인이나고 그래 그렇다고 했더니 빨리 오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애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데. 순간 아찔해. (사망소식)
 - * 이모부들이 앉아 계시고 나는 침대에서 젓먹이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막 혼자 신음을 하더니 숨소리가 이상한 거야. 내가 여보 왜그래 그래도 숨소리만 이상한거야 원장이 와서 보더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특수촬영해 보니까 머리가 4군데나 깨졌다고 하더라고 (이상한 숨소리)
 - * 느낌이 이상하게 나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니까 남편이 죽어있는거야.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주검)
 - * 특수 촬영한다고 들어가더라구 이미 때는 늦은거지. 거기서 운명한거지 (운명함)
 - *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애 아빠가 인사불성이야. 막 아프다고 소리치르지만 하고 그때 당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사고남)
 - * 개인택시 기사가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실어다 주었어. 때가 너무 늦은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린거야. (과다출혈)
 - *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하는데 입고 있는 가죽잠바 속에 유혈이 낭자해. 저걸 보고 내가 더 충격을 받았어. (피투성이)
 - *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애 아빠가 뒤로 딱 넘어져 가지고 눈을 뜨고서 쓰러져 있는데 (쓰러짐)
 - * 내 남편이 죽었다니까.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뭐 삼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충격 받으니까. (충격받음)
 - * 애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갔는데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갔는지 하여튼 몰라, 거기서 부터 정신

- 이 다 나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당황함)
- * 어떻게 된건지 불안해 죽겠어. (불안함)
 - *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 꼭 누구 한사람 옆에 세워서 들어가. 사람이나 알아봐야 들어가도 마음이 놓이지. (무서움)
 - * 계속해서 정신만 혼돈이 되고 쓰러지는 거지. 기절하고 (정신혼돈)
 - * 그때는 오빠들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났어요. 당황해 가지고 (기억 안남)
 - *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깜깜했어요. (깜깜함)
 - * 나는 당황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서 줄도해 버린거지. (줄도함)
 - *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막 무시하고 깔보고 (무시당함)
 - * 내가 남한테 잘못된 것도 없고 나쁜 것 한것도 없는 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 가슴이 너무 너무 억울한거야. (억울함)
 - * 딴 것은 고하간에 죽은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원망)
 - * 사고 원인관계 때문에 미망인이 죽은 사람을 치우라고 해서 울음도 안 나오고 숨이 막히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화남)
 - * 살아나도 옳은 인간은 못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야. 내가 기가 꼭 막히더라고요. (기막힘)
 - * 앞이 캄캄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거지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나고 막막한 거지. (막막함)
 - * 처음에 누구한테 망치로 얻어맞은 거 같더라고요 느낌이 (명함)
 - * 죽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봤으면 나는데 그것을 안 보여줘서 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음)
 - * 그 자리가 그렇게 큰줄 몰랐어요. 그 빈자리가 (자리 빔)
 - * 장사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가지고 있던 물건 다 없애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허전함)
 - *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희망을 잃은 거지 (희망 상실)
 - * 이젠 모든 걸 체념했어. 다 포기했어. (삶의 의미 상실)
 - *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안계셨다면 난 아마 약먹고 죽었을거예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자살 충동)
 - * 8개월 밖에 안된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

- 가야 할까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 * 국민학교 1학년, 저거 일곱살, 우리 막내딸 다섯살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눈물도 안나오고 (자녀들 수와 나이)
 - * 지금도 애들하고 산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생각을 하는 것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어찌고 하니깐요. 거의 장애자라는 이유로 딱지를 많이 받았어요. (주위지지 부족)
 - * 여기로 이사온지 한참 됐는데도 친정에서도 한 사람 안 와보고 그런게 서운하죠 (친정 지지 부족)
 - * 그리고 남편 죽으니깐 시댁에 있는 사람은 소용 없더라고요. (시댁지지 부족)
 - * 우리 친정 언니가 그때 겨울이니까 애들 학교도 안다녔으니깐. 쌀 한 가마니 팔어다 주더라고요. (친정지지)
 - * 시댁 식구들이 잘해. 세탁기 탈수 안되면 해주고 복잡한 일도 다 해주고 혼자 할 수 없는 일 있으면 시누 한테로 가지 동생한테로 가게 안되더라고요 시누가 또 잘해줬어. (시댁지지)
 - *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일을 나가도 딴 사람은 2만원 주면 나는 더 많이 주더라고요. (주위지지)
 - * 시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처남댁 아무래도 다친 것 같으니까 정신을 잃지 말고 잘듣고 메모 잘해” 그러면서 염려 하더라고요. (염려해줌)
 - * 애들이 나만 기다리고 그런거 보면 외롭고 하는거 위안이 돼 (위안됨)
 - *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지금껏 다녀요. (신을 의지함)
 - *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빚만 늘어나 (경제력)
 - * 그때는 내가 세상 일을 몰랐어요. 세상에 내가 직장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남의 말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집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인데 (사회경험)
 - *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열심히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념 강화)
 - * 어떻게 해요. 때거리도 굶게 생겼으니까 애들 굶기니깐 나중에 할 수 없이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정신차림)
 - *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했어. (궁리함)

- * 사람이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애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애를 업고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자전거 앞에 태우고 우유배달도 하고 막 일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직업가짐)
- * 우리 애들요 하나라고 오냐 오냐 하고 그러지를 안했어요. 아주 하나이기 때문에 강하게 키울라고 이 세상에서 사람만 좋아갔고 안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억센 세상을 살려면 아주 의붓어미처럼 키워었어요. 저 혼자 나가서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엄한 자녀 교육)
- * 그래서 내가 한달인가 있다가 그런거예요. 느이들이 만약에 아빠 생각을 하고 울면 엄마는 느이들 믿고 살수가 없으니깐 느이들 고아원 가야 돼 그러니깐 내 앞에서 나를 자꾸 약하게 하면 안된다. 우리 3식구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도망갈까 봐 둘이가 다 아버지 애길 일절 안하는 거예요. (다짐함)
- * 걸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속은 침묵만 지켰을 뿐예요. 난 그래서 바깥 주인이 돌아가실 때도 잠잠이 있고 눈물만 흘리는 심정을 알만해요. (참음)
- * 악착같이 벌어서 애들 둘 보란듯이 공부시키고 몇 몇하게 키워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 (생활력 증강)
- * 지금 우리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내가 딱 고생 5년 잡고 있어요. (희생 각오)
- * 혼자 살아보면요. 하루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요.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 뿐이지 그래서 밖에 안나가. (지침)
- * 몸이 아프니까 벌어먹고 사는게 힘들어요. 안하면 안되고 (병듬)
- * 그래도 애들 아버지 있을때는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내가 참 기가막히데요 진짜 파출부를 다니고 그렇게 생긴데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위 하락)
- *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사건건 혼자 해야 하나까. 어렵게 참 많았어요. 사사건건 조심스럽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듬)
- * 시어머니한테 빌려온 돈으로 쪼그만 방을 얻었는데 너무 너무 작아 살림살이는 다 누구주고 버릴거 버리고 그랬는데도 애하고 잘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애를 업고 언니네 오빠네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두달 저기서 한달 이런식으로 다녔어요. (궁핍함)
- * 생활이야 뭐 여자 혼자사는 데 애시당초 없이 사는게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살았겠어요. 혼자서는 힘이 딸려. (힘에 부침)
- * 애가 어렸어. 엄청 어려가지고 어디다 맡길 때도 없고 어려움이 많았어. 놀이방에도 맡기고 겨울에는 농사 안지으니까 우리 울케한테 몇 달 봐달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힘든 양육)
- * 내 책임이 크다는 걸 생각했어요 (책임 증가)
- * 옆에서 자꾸 재혼 이야기를 해 애 아빠를 잊어 잊어 하지 남자도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그럴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되지 안되지 하고 속으로 말해요. 나쁜 마음 가지면 안되지 (재혼 권유)
- *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나는 참 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애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 때문에 나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기억장애)
- * 산업을 지금 이렇게 오래했는데 한번도 못가요. 그것이 죄스러운거지요. (죄스러움)
- * 어떻게 울고 살았는지 그건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고 (울음)
- * 지금은 애들 셋이 방에 딱 누우면 방안이 하나 가득하고 다 큰 애들을 보면 혼자 보기가 아까워.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 나더라구. (아쉬움)
- *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애네 아빠가 또 외아들이야. 아무도 없거든요. (측은한 마음)
- * 만건 몰라도 우리 작은애가 얼굴을 몰라요. 4살때 갔으니깐 잘 모르지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가슴 아픔)
- * 그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되는 건데 내가 어리석은 거지.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였어. (어리석음)
- * 부러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서럽더라구. (서러움)
- * 그때 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이불을 못덮고 자요. 방이 뜨거우면 막 답답증이 나서 이 문을 못닫고 자요. 자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문을 다 열어젖혀 (울화참)
- * 왜그러냐면은 나는 요만큼도 티를 안내기 위해서 일을 다닐 때는 꽤죄죄하게 일을 하지만 모양 내면서 일을 할순 없잖아요. 그런데 외출할때나 교회갈 때는 아주 깔끔하게 하고 가요. (숨김)
- * 죽는 것을 못봤으니까 지금도 그것이 가슴에 맺혀 있어요. (맺힘)
- * 옷도 2년 동안은 안버리고 있었어요. 그대로 둔거

예요. (간직함)

- *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그렇지요. (외로움)
- * 그리고 나서도 점점 애가 자라는 것을 볼수록 애 아빠 생각이 더 나요. (보고픔)
- * 그래 나는 애들을 키워도 남편한테 천대 안받고 싶어서 남보다 깨끗하게 키우고 앞장서게 키웠지. 뒤떨어지진 않았어. (자긍심)
- * 인제는 뭘해도 무서운게 없고 그 고비를 넘겼으니까. (극복함)
- * 울타리란게 병들은 남편이라도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데 정말 이해가 됐어요. (이해함)
- * 나는 크는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는게 소원이죠. (바램)

2) 하위 범주

분류된 81개의 개념을 유사한 현상이나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묶어 범주화 하여 다음과 같이 22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 (1) 불길한 예감: 이상한 예감, 악몽.
- (2) 뒤늦은 연락: 무소식, 뒤늦은 연락, 사망소식.
- (3) 죽음: 이상한 숨소리, 주검, 운명함, 사고남, 과다출혈, 피투성이, 쓰러짐.
- (4) 놀람: 충격받음, 당황함, 불안함, 무서움.
- (5) 깜깜함: 정신혼돈, 기억안남, 깜깜함, 졸도함.
- (6) 원망: 무시당함, 억울함, 화남, 원망.
- (7) 막막함: 기막힘, 막막함, 멍함, 믿어지지 않음.
- (8) 텅빔: 자리빔, 허전함.
- (9) 잃음: 희망상실, 삶의 의미상실, 자살충동.
- (10) 자녀상황: 자녀들 수와 나이.
- (11) 주위지지 부족: 친정지지 부족, 시댁지지 부족, 주위지지 부족.
- (12) 주위지지: 시댁지지, 친정지지, 주위지지, 염려해줌, 위안됨.
- (13) 힘: 신을 의지함, 경제력, 사회경험, 신념강화.
- (14) 살거리함: 정신차림, 궁리함.
- (15) 직업선택: 직업가짐.
- (16) 강화함: 엄한 자녀교육, 다짐함, 참음.
- (17) 증강함: 생활력 증강, 희생 작오.
- (18) 부담: 지침, 병듦, 지위하락, 힘듦, 궁핍함, 힘에 부침, 힘든 양육, 책임증가, 재혼권유, 기억장애.
- (19) 슬픔: 죄스러움, 아쉬움, 측은한 마음, 가슴

아픔, 어리석음, 서러움.

- (20) 멧힘: 울화참, 숨김, 멧힘.
- (21) 그리움: 간직함, 외로움, 보고픔.
- (22) 이겨냄: 자긍심, 극복함, 이해함, 바램.

3) 상위 범주

22개의 하위범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9개의 상위범주로 다시 묶어 범주화하였다.

- (1) 남편사망: 불길한 예감, 뒤늦은 연락, 죽음.
- (2) 기막힘: 놀람, 깜깜함, 원망, 막막함, 텅빔, 잃음.
- (3) 자녀존재: 자녀상황.
- (4) 지지유무: 주위지지 부족, 주위지지.
- (5) 자활능력: 힘.
- (6) 대책마련: 살거리함.
- (7) 자기강화: 직업선택, 강화함, 증강함.
- (8) 힘겨움: 부담, 슬픔, 멧힘, 그리움.
- (9) 극복함: 이겨냄.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 분석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중심현상을 발생시킨 인과적 조건, 전략을 세워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인 중심현상, 현상에 관계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표시되는 맥락,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중재상황,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중심현상이 해결된 상태인 결과로 분류하고 이들의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1) 인과적 조건: 남편사망

이상한 예감, 악몽, 무소식, 뒤늦은 연락, 사망소식, 이상한 숨소리, 주검, 운명함, 사고남, 과다출혈, 피투성이, 쓰러짐등의 개념으로 구성된 남편사망은 배우자가 남편에 관한 이상한 예감과 악몽등을 통해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고 이어서 남편의 사고소식과 죽음을 맞이한 현실을 알게되는 초기과정으로 본연구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이 되며 모든 상황의 관계가 남편의 사망을 알게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의 중심현상인 “기막힘”의 인과적 조건으로 남편사망을 선택하였다.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분석에서 나타난 인과적 조건

인 남편사망에 대한 속성은 죽음의 양상이며 정도의 영역은 예기됨-예기되지 못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2) 중심현상 : 기막힘

본 연구에서 기막힘을 중심현상으로 택하게 된 것은 상황의 전개가 남편이 죽었다는 초기의 충격과 불안으로부터 당황의 짧은 순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상실 자체를 거부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정도와 기간이 비교적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강한 부정은 현실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된다. 죽고 없다는 현실 앞에 배우자는 슬픔과 절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는 초기의 막연한 막막함에서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장래에 대한 감감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의 기막힘에 대한 감정은 급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대한 막막한 생각과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족과 사회적 지지 불안정, 생활에 대한 걱정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슬픔과 절망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기막힘에 대한 감정을 갖는 이 단계가 배우자에게는 현실을 수용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의 첫 단계가 되기도 하여 배우자는 절망을 느끼는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일과 자녀, 가족, 자신의 장래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이며, 기막힌 감정에 빠져 바깥 출입을 끊고 집안에 은신하며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나날을 보내기도 하며, 술을 마시고 집을 뛰쳐 나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여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배우자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위안과 지지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자각하기도 하여 현실을 지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특히 신에게 의지함으로서 자신과 가족의 신념을 새로이 하고 자신의 책임증가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과 전략을 세우는 준비단계가 되기도 한다. 기막힘의 속성은 강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심함-약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3) 맥락 : 자녀존재, 지지유무

사고로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가 느끼게 되는 절망함의 정도와 기간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고나 사망소식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되는 초기의 충격과 장래에 대한 막막함,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증가된 책임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의 정서는 기막힘의 복합적 감정으로 나타나며 그 정도는 자녀의 수나 나이, 자녀의 돌봐줌, 시댁, 친정, 주위의 지지 유무 등 배우자 자신이 자각하는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기막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전략과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자녀존재의 속성은 수와 나이, 정도의 영역은 많음-적음이며, 지지유무의 속성은 강도, 정도의 영역은 높음-낮음이었다(표 4 참조).

(4) 중재상황 : 자활능력

남편을 잃은 배우자는 죽음 자체가 갖는 특성인 맥락 뿐 아니라 주위의 조건인 중재상황에 따라 기막힌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전략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주위의 조건인 신을 의지함, 경제력, 사회경험, 신념 강화 등의 정도에 따라 배우자의 자활능력의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즉, 주변의 상황들이 예기된 죽음인가 여부와 사고후 남편의 상태, 가족 및 지지정도와 자신과 자녀의 장래에 대한 안정 여부 및 자녀의 수와 나이 정도, 자신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증가된 책임의 정도, 평소의 생활수준의 정도와 남편이 사고사를 당하기 전 배우자의 사회생활 경험 유무, 신체적 결함과 자신의 신념 및 신앙 생활여부 등 배우자가 가진 자활능력에 따라 기막힘에 대한 대응전략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막막함의 정도는 사고 전의 가정생활의 경제력 안정 정도와 자녀들의 수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났고, 어떻게 키우나, 나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등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막막해 하였다. 이때 가족의 위안과 지지, 특히 시집식구들의 지지는 배우자가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종교생활의 여부가 신념강화와 내적 평안을 찾는 데 지지가 되었다.

자활능력의 속성은 정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많음-적음이었다(표 5 참조).

(5) 전략 : 대책마련, 자기강화

남편과 사별한 배우자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 살아야 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새로운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

하였다. 이 전략에는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자녀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상황을 느끼고 자신의 신념과 생활력을 강화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억제하여 내적으로 삭이는 참음의 모습을 보이고 회생을 감수할 각오를 하며 자녀들과의 내적 결속을 다짐하고 직업을 갖는 대책마련의 전략을 세우게 된다. 대책마련의 속성은 형태이며 정도의 영역은 능동-수동적이다. 자기강화의 속성은 강도이며 정도는 강함-약함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6) 결과 : 힘겨움, 극복함.

전략의 결과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여 자신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파출부, 공원, 우유배달, 막노동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서 힘에 부침을 느끼게 되고 항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을 해도 언제나 여유없는 궁핍한 생활에 힘겨운 모습을 나타냈다. 남편의 죽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증가된 책임과 새로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랜 시간일을 하게 되고 그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돌봐줄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다닌 것 등에 대해 가슴아파 하였다. 남편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동안 살아온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홀로된 자신과 아버지 없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측은한 마음과 가슴아픔을 나타냈다. 경험없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주위에서 받게되는 직업적, 환경적 조건에서 서러움을 느끼고 남편의 이상한 언행을 미리 알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을 뒤늦게 알고, 죽음에 직면한 남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사망하고 난 후 산소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쉬움,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에 “恨(한)”으로 변하여 남아 있음을 나타냈다. 남편의 사망에 대한 충격으로 놀람과 슬픔, 기막힘의 상황속에서 오직 살기위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면서 지치고 병든 상태를 나타냈고 자신의 처지를 내보이지 않고 숨기려는 이중적 성격을 보이며 주위사람들에게서 느낀 분노와 불만의 감정은 마음속에 울화로 맺혀 있음을 나타냈다. 남편의 사망으로 홀로된 이후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힘겹게 살아온 지난세월의 결과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었지만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속에서 자신이 극복해온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긍심과 만족한 감정을 나타냈

다. 평소에 등한시 했던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저 노력하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조그만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남편 사망	양 상	예기됨-예기되지 못함

〈표 3〉 “기막힘”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기 막 힘	강 도	심함-약함

〈표 4〉 맥락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자녀 존재	수와 나이	많음-적음
지지 유무	강 도	높음-낮음

〈표 5〉 중재 상황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자활 능력	정 도	많음-적음

〈표 6〉 전략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대책 마련	형 태	능동-수동
자기 강화	강 도	강함-약함

2) 과정 분석

Strauss & Corbin(1990)은 과정(process)이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현상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일련의 선후관계의 형태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권혜진, 1994).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사고사로 미망인이 된 배우자가 경험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이상한 예감, 악몽	불길한 예감		
무소식, 뒤늦은 연락, 사망소식	뒤늦은 연락	남편 사망	인과적 조건: 남편 사망
이상한 숨소리, 주검, 운명함, 사고남, 과다출혈, 피투성이, 쓰러짐	죽음		
충격받음, 당황함, 불안함, 무서움	놀람		
정신혼돈, 기억안남, 깜깜함, 졸도함	깜깜함		
무시당함, 억울함, 원망, 화남	원망	기막힘	중심현상: 기막힘
기막힘, 막막함, 멍함, 믿어지지 않음	막막함		
자리빔, 허전함	텅빔		
삶의 의미상실, 자살충동, 희망상실	잃음		
자녀들의 수와 나이	자녀상황	자녀존재	
주위지부족, 친정지부족, 시댁지부족	주위지지 부족	지지유무	맥락: 자녀존재 지지유무
친정지지, 시댁지지, 주위지지, 열려해줌, 위안됨	주위지지 힘	자활능력	중재상황: 자활능력
정신차림, 궁리함	살 궁리함	대책마련	
직업가짐	직업 선택		
엄한 자녀교육, 다짐함, 참음	강화함	자기강화	전략: 대책마련, 자기강화
생활력 증강, 희생 각오	증강함		
자기강화			
지침, 병듦, 지위하락, 힘듦, 궁핍함, 힘에 부침, 힘듦 양육, 책임증가, 재혼권유, 기억장애	부담		
괴스러움, 울음, 아쉬움, 측은한 마음, 가슴아픔, 어리석음, 서러움	슬픔	힘겨움	결과: 힘겨움, 극복함
올화참, 숨김, 멧힘	멧힘		
간직함, 외로움, 보고픔	그리움		
자극심, 극복함, 이해함, 바램	이겨냄	극복함	

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범주인 기막힘의 생성에서 결과까지를 분석하였다.

(1) 기막힘의 생성

기막힘의 생성과정은 배우자가 느끼는 불길한 예감과 뒤늦은 연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의 사고소식과 죽음을 알았을 때 느끼는 충격과 막막함은 사고로 죽은 남편의 모습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함과 기막힘으로 증폭된다. 기막힘의 원인 조건들로 작용한 개념들은 불길한 예감과 뒤늦은 연락, 죽음 등이었다.

(2) 기막힘에 대한 반응

남편의 사고소식과 죽음의 확인을 통해 증폭된 당

황함과 기막힘의 감정은 남편을 잃은 현실을 부정-수용하는 단계에서 주체하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전혀 예기치 못한 죽음일수록 남편의 죽음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멍함과 믿으려 하지 않는 반응을 나타냈다. 남편의 평소 모습에 몰입하여 모습과 소리등에서 반복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다. 현실을 수용하면서 주변상황과의 타협의 양상으로 울음과 슬픔, 원망과 분노, 아쉬움의 감정을 보이며 생활주변에서 남편의 자리가 텅비어 있음을 느끼고 허전함과 막막함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감정 변화의 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해 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3) 기막힘에 대한 대응

절망적 감정의 단절과 자살적 충동을 이기고 일상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화의 가장 큰 요인은 자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자녀들의 장애에 대한 걱정 등이었다.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위사람들의 지지와 위안을 요구하며, 이 상황에서의 지지정도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서적 위안과 내적 안정의 지지 수단으로 종교에 의지하며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여, 자녀들을 향한 책임역할 수행과 희생각오를 다짐하며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대응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자살을 시도하는 부정적 대응자세 또한 나타났다.

(4) 기막힘에 대한 적응

기막힘의 감정은 시간이 가면서 생성, 대응,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현상이다. 기막힘에 대한 적응의 한 과정으로 배우자가 선택한 전략은 살아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궁리를 하며, 그 결과로 직업을 선택하고 신념강화와 생활력을 증강하며 새로운 삶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힘든 양육과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힘의 한계와 지침,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서러움등에 쉽게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기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숨기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죽은 남편의 영상에 몰입하여 남편과의 생활속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유품들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산소에서 남편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부정적 적응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긍정적 적응의 모습은 새로운 삶 속에서 결과의 형태로 나타났다.

(5) 기막힘에 대한 결과

기막힘의 감정에 대한 전략의 결과는 힘겨워하는 부정적 모습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낸 긍정적 모습을 함께 나타냈다. 살아갈 대책마련과 살 궁리와 같은 전략의 결과로 직업을 갖게되고 생활력과 신념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돌연이 찾아온 대책없는 불행은 배우자에게 새로운 역할과 증가된 책임을 지우게 되고 자녀들과의 생활과 장애를 위해 많은 시간동안 일해 나가면서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녀들의 힘든 양육과 채워지지 않는 생활의 궁핍함, 지치고 병든 신체와 마음속에 울화가 가득한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속에

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긍심과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편으로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보고픔, 자녀걱정등으로 재혼에 대한 권유와 자신을 돌이켜 볼 시간과 정서가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감정상태를 보였다.

3) 가설적 정형화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으로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맥락과 중재상황을 형성하는 각 범주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막힘이 심하고 자녀들이 많고 나이가 적을 경우
- (2) 기막힘이 심하고 자녀들이 적고 나이가 많을 경우
- (3) 기막힘이 약하고 자녀들이 많고 나이가 적을 경우
- (4) 기막힘이 약하고 자녀들이 적고 나이가 많을 경우
- (5) 기막힘이 심하고 지지가 높을 경우
- (6) 기막힘이 심하고 지지가 낮을 경우
- (7) 기막힘이 약하고 지지가 높을 경우
- (8) 기막힘이 약하고 지지가 낮을 경우
- (9) 기막힘이 심하고 자활능력이 많을 경우
- (10) 기막힘이 심하고 자활능력이 적을 경우
- (11) 기막힘이 약하고 자활능력이 많을 경우
- (12) 기막힘이 약하고 자활능력이 적을 경우

4) 관계 진술

관계진술은 가설적 정형화를 근거자료 속의 사례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상황, 그리고 결과의 속성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영역의 함수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1990).

이들을 근거자료의 사례와 대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 (1) 남편사망이 예기 되지 못한 죽음일수록 기막힘은 심해질 것이다.
- (2) 자녀가 많고 나이가 적을수록 기막힘은 심해질 것이다.
- (3) 지지가 낮을수록 기막힘은 심해질 것이다.
- (4) 자활능력이 많을수록 대책마련에 능동적일 것이다.

- (5) 자활능력이 적을수록 대책마련에 수동적일 것이다.
- (6) 자활능력이 많을수록 자기강화가 약할 것이다.
- (7) 자활능력이 적을수록 자기강화가 강할 것이다.
- (8) 기막힘에 대한 대책마련을 능동적으로 할수록 극복할 것이다.
- (9) 기막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수동적으로 할수록 험겨워 할 것이다.
- (10) 기막힘에 대한 자기강화가 강할수록 극복할 것이다.
- (11) 기막힘에 대한 자기강화가 약할수록 험겨워 할 것이다.

5) 연구의 평가

근거이론 연구의 평가는 연구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의 근거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모아진 근거이론 분석에 따른 연구 모음의 결과(Cheniz & Swanson, 1986; Glaser, 1978; Strauss & Corbin, 1990) 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연구과정이 충분한지와 연구결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로 실시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상자 3명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처럼 인식하는 지를 확인하여 타당하다는 동의를 얻었고 또한 자료분석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으며, 교수 1인의 조언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범주간의 관계성을 반복되는 현상과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고, 근거이론으로 논문을 발표한 선행연구자와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V. 논 의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22개의 범주와 핵심 범주인 기막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생성-반응-대응-적응-결과를 따라 연결체적 서술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은 부부 중심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부부단위의 참여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서 남편의 죽음이 부인에게 상호역할분담 및 의존으로 부터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게 된다. 즉 남편

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정체감의 상실 및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김선영(1990)은 미망인이 된 후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를 발표하면서 외로움과 슬픔, 자녀교육, 생활비 걱정, 자녀 양육비 걱정 등을 상위의 우선 순위로 발표하였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초기 경험으로 남편의 사망을 전후한 바로 직후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특징을 나타냈다. 전혀 예고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죽음인 경우에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는 유형은 배우자 자신이 어느 순간 섬뜩함, 머리끝이 서는 듯한 느낌과 무서움을 갖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그 순간을 바로 전후하여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사망순간과 배우자 간에 텔레파시로 분류되는 영적 교감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 배우자는 엄청난 충격과 당황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짧은 순간에 기막힘으로 전환되며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놀람과 멍함의 상태를 보인다. 감정 표현이 중단된 상태인 멍한 상태는 여러 문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Lasgari & Stehens, 1983; 이광자, 1987).

상황의 전개에 따라 남편이 죽었다는 상실감과 현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데 Kubler-Ross(1973)의 저서 "On death and dying"에서도 임종기의 환자나 그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초기 단계가 부정과 고립이라 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편의 상실이라는 현실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은 일상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으로 삶과 죽음의 시간 차이가 너무 짧아 양극의 감정을 연결할 공간이 너무 멀기 때문이며, 배우자가 충격 받을 것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이 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남편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지 않아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장례식 자체도 자신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으로 믿고 참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도 남편의 모습과 소리 등에 대한 착각을 반복하고 상실이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 Lasgari & Stehens(1973)과 이광자(1987)의 연구에서도 상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권혜진(1980)은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주위 인물의 사망을 경험한 대상자의 50% 정도가 죽음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현실의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는 감정은 남편의 죽음과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 슬픔과 눈물을 보이기 보다 무감각하고 감정표현이 중단된 멍한 상태로 나타났다. 상실에 대한 강한 부정은 실체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실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정섭(1992)의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 연구에서 자녀가 사망한 현실의 거부·수용의 단계가 있음을 나타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배우자는 비로소 북받치는 슬픔과 분노, 아쉬움, 죄책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눈물로 보내게 된다. 슬픈 감정은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걱정과 감함, 막막함 등의 함축적 의미인 기막힘과 복합적인 연결체로 표현된다. Kubler-Ross(1969)의 연구에서도 죽음의 사실을 현실화할 때 분노 또는 죄책감을 느끼며 상실의 수용 단계에서 슬픔과 우울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기막힘의 감정은 급작스러운 상황의 발생과 자신이 처한 현실의 위기와 괴로움, 슬픔, 원망, 억울함 등의 감정을 호소하고 타협하려는 감정이며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와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 자신에게 주어질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죽은 남편의 이미지에 대한 몰입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막막함은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데, 본 연구에서의 중심개념인 기막힘의 하위개념인 막막함을 느끼는 요인들은 대상자들의 연령이 30-40대인 관계로 자녀들의 나이가 발달 주기상 성장기 및 교육기에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의 부재, 자녀들의 수와 나이, 가정의 경제력 정도에 따른 불안함의 복합적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가족의 임종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Switzer(1970), guilera(1974)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 Barton(197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정섭(1992)은 죄책감과 원망 등으로 구성된 한탄은 조절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느끼는 기막힘을 조절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자신의 무관심과 어리석음 등으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산소를 만들지 않은 것, 장례식에 참석치 않고, 죽은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것 등에 대한 감정으로 죄책감을 나타냈다. 김순옥(199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Baudry & Wiener(1968)은 가족의 임종시 충격과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죄책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소 잘해주지 못한 데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전시자의 39인, 1991).

남편이 없어진 자리가 비었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평소 생활하던 공간과 환경 등에서 자리빔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주위사람들이 모두 제자리로 가고 남편이 사용하던 유품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서야 배우자는 허전함을 느끼며 생활공간에서 남편 자리의 텅빔을 느꼈다. 자녀를 잃은 후 느끼는 텅빔도 유사한 결과(이정섭, 1992)를 보였으나 자녀의 상실은 남은 자녀와 새로운 임신, 입양 등의 대응전략이 가능한 경우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사고와 관계된 처리 과정에서 구조적 비리와 불합리한 결과를 통해 억울함, 화남, 무시당함과 같은 끊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감정은 일상생활로 복귀한 후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남는 결과를 보였다. 현실을 수용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자로서 맞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생활의 궁핍함 등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예기하지 못한 갑작스런 죽음은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남긴다고 하였다(문종진, 1994). 가정내의 남편 역할을 연구한 김순주(1994)는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1차적 역할이라고 하여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남편을 상실한 배우자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하였으며, Harvey와 Bahr(1974)도 경제적 지위나 역할의 정도가 미망인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영(1990)도 자신의 연구 대상자를 통한 조사결과 미망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69.8%가 경제 및 교육비 지원을, 19.8%가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들의 장래걱정, 생활걱정, 궁핍함 등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Cohen(1984)와 Rook(1987)은 미망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사별이후 소속감을 제공하여 주는 지지체계의 필요성이라고 하였다.

위기 상황을 맞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위안과 지

지는 초기에는 정신적인 면에서 지지를 받게 되며, 가족들에 대한 지지요구가 높은 반면 또한 지지결여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도 높게 나타나 김순옥(1972), Hampe(1975), Blank, Clark, Longman, Atwood(1987) 등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대와 친정의 지지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에 있어서 시대의 지지가 친정의 지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와의 관계가 의무에 기초하고 있어 남편의 사망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구자순(1982)이 보고한 젊은 미망인의 상호작용 빈번도에서 친정형제, 자매, 부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김선영(1990)의 연구에서도 시대 지지부족을 지적하며, 미망인이 받는 지지의 내용을 사랑, 돌봄, 이해와 같은 애정적 지지, 어려운점 논의와 같은 정보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도움으로 기술하고 물질적 도움을 친정식구들로 부터의 도움이 시대식구들의 지지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Vachon(1988)의 연구에서도 미망인 친정식구의 지지 정도가 크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미망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핵가족제도 가족체제로 유지해 간다면 전통적 친족체제로부터 이중 체제로 변화해 가는 오늘날의 가족제도 속에서 미망인의 지위가 시대와 친정 사이에서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가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Kaplamm(1977)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위기에 처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보호하고 중재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정섭(1992)도 가족과 주위의 지지가 중요하며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도적, 체계적, 사회적 지지 형태는 미약한 수준이며, 개인과의 상호교환작용 및 지원과 도움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별양상일 경우, 미망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배우자에게 대응할 전략을 세우게 하여 가정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의 증가, 인생 목표와 동기의 변경 등 어려움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석(1966)의 부부의 역할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생계비 벌이 역할을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거의 80%라고 했으며, 옥선화(1982)는 가족의 역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남

편의 70%가 경제활동의 주소득자 역할을 하였고, 김효숙(1988)의 남편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역할 순위에서 생계 담당자, 경제활동 등이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며, 그 동기는 자녀들에 대한 생계, 교육 등에 있음을 나타냈다. 역할변화와 책임 증가는 Blank, Clark, Longman, Atwood(1989), 김순옥(1990)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동일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절망감에 빠진 배우자에게 새로운 신념과 위안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하는 데 신앙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최공옥(1991), 이정섭(1992), 이재만(1990), 정복례(1991), Castles와 Marray(1979) 등이 종교적 의지가 중요한 정서적 지지 체제임을 제시한 내용과 같다.

일상생활로 복귀한 배우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힘겨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각기 나타냈다. 현실을 수용하고 살기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하지만 능력과 경험의 한계에서 육체적 지칩과 아픔을 호소한다. 충격과 절망의 나날을 살아온 배우자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울화가 가득차고 멧혀 있으며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지었다고 생각하며 남편이 없으므로 해서 받게 될 멸시와 편견들을 염려하여 자신의 내면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이중적 성격을 보이는 등의 결과를 나타냈고 마음속에 멧혀 있는 울화와 죄책감, 숨김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여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남편 사별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으므로 해서 원만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 위안을 찾고자 하나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결과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긍심을 나타내고 사회에 대한 편견과 분노의 갈등을 삭이고 이해하고자 하며, 자신의 장래 희망을 나타내 보이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냈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재혼에 대해 충동도 느끼지만 몸과 마음속에 남아 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에 대한 감정으로 아직은 생각 못할 일이라 표현했고, 자식에 대한 끝까지 많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때문에 자신을 돌리켜 볼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재혼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Robert(1988), 통계청(1989)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중년여성의 경험에 관한 실제 이론을 개발하여 미망인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설정하여 상실되고 굴절된 생의 부분들을 회복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긍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경험을 가진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4월 8일까지 116일이 소요되었으며, 연구방법은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였고 면담시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고 면담시간은 대상자 1인당 약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를 기술하는 데 1인당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추출해낸 개념은 81개였으며, 이것은 다시 분석과정을 거쳐 22개의 하위범주로 묶었고 이를 9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화의 과정에서 “기막힘”이 핵심범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 “놀람”, “깜깜함”, “원망”, “막막함”, “텅빈”, “잃음” 등을 핵심범주인 “기막힘”으로 묶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경험하는 “기막힘”은 생성과 반응, 대응, 적응 과정을 거치며 긍정적,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기막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사용하였다.

- 1) 자신과 자녀들의 신념을 강화하였다.
- 2) 가족 및 사회지지를 요구하였고, 특히 종교적 지지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 3) 역할 재설정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의 동기화 요인은 자녀들에 대한 장래적정이었으며 이것은 그대로 목표설정의 대상이 되었고,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직업을 갖게 하였다.

대응방안에 따라 배우자는 당장 급한 의·식·주 해결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지만 경험과 기술이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경우는 단순노동인 일용직, 파출부, 공장일을 행하지만 여자로서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느끼고 힘겨워 하며 고난의

세월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 사망전 배우자의 사회생활 경험 유무에 따라 자활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 생활에 대한 적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힘겨움과 극복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 힘겨움 : 부담, 슬픔, 맺힘, 그리움

절망의 세월 속에서 대상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병들었으며, 남편의 죽음과 관련한 억울함, 원망 등이 울화로 맺혀 있으며 죽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것과 장례를 잘 치루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스러워하며 후회한다. 홀로됨으로서 받게 될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을 걱정하여 자신의 내·외면의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 이중성 등이 몸과 마음속에 맺히고 남아 있음을 나타냈다. 죽음의 확인, 충격, 불안, 멍함, 장례식, 절망, 현실거부와 수용, 정신차림, 직업가짐, 지침, 병든, 맺힘, 남음 등의 어려운 생활상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서적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상자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정리할 시간적 공간을 갖지 못하여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환경을 못이어서 하며 산소에 가서 대화를 하고 위안을 찾으며, 주위의 재혼에 대한 권유도 생각못할 일로 표현하여 생활에 대한 정서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지만 남편에 관한 정서는 남편죽음 이전의 과거에 정체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주위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지지체를 찾으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막막해 하였다.

(2) 극복함 : 이겨냄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동기와 목적을 자녀들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때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내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음을 나타냈다.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바램을 갖는 비교적 안정된 정서를 나타냈다. 자녀들에 대한 끝나지 않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끝없는 희생과 각오를 다짐하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지만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긍심과 만족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아내를 잃은 남편의 경우와 비교 연구하여 더욱 정련된 이론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가족문화의 변화로 미망인의 지위와 위치가 시때와 친정 양측 사이에서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연구대상자들의 굴절되고 홀어진 삶을 정립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조협동체(Self Help Group)의 활성화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곽정식(1993). 돌연사 감정의 현황과 문제점. 중앙의학, 1-6.

구자순(1982). Korean Women in Widowhood.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 2.

권혜진(1980).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87). 임종환자 가족이 죽음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_____ (1994).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9). 한국의 사회지표, 265.

김영자(1972). 임종환자를 포함한 Terminally Ill patient의 간호에 대한 제반연구. 대한간호, 59.

김동규(1986). 우리나라 중년기 사망에 관한 통계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숙(1988).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1990). 미망인의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모(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4-30.

김순옥(1992). 임종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열·정병조·정진홍·이시형(1987). 죽음의 사색. 서울:서당출판사. 50-57.

민성길·이만홍의(1986). 희병에 대한 진단적 연구. 대한의학회지, 29, 653-661.

문국진(1994). 의료와 돌연사. 중앙의학, 1-6.

성영 역(엘리자베스 큐블러 저)(1979). 인간의 죽음. 경북:분도출판사.

이시형(1977). 희병에 대한 연구. 고려병원잡지, 1(2), 63-79.

이성희(1986). 부부의 역할과 사회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만(1993). 한국 중년 남녀의 사망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섭(1992).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옥선화 외(1993). 결혼과 가족. 서울:하우출판사. 167-168.

조지행(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시자의 39인(1991). 성인간호학. 서울:현문사. 336.

정복례(1991).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명숙(1993). 중년남성의 자기관리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적 연구. 중앙의학 58 : 11.

통계청(1993). 사망원인 통계연보.

Aguilera, D. C., & Messick, J. M. (1974). Crisis Intervention(2d ed.) St. Louis CV Mosby co.

B. H. Kaplan et al(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ine Care. vol. 15.

Barton, D(1977). Dying and Death. Baltimore : The Williarms & Wilkins Co.

Barrett, J. E. (1979). Stress and Mental Disorders, New York : Raven press.

Bankoff, Elizabeth. A. (1983). Social support and ad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827.

Baudry, F & A, Wiener(1968). The family of the surgical patient. Surgery, 63(3), 416-422.

Bedworth, J. A. & M. T. Molen.(1982), "Psychological stress in spouses of patients with myocardial infaction", Heart & Lung, Vol. 11, No. 5, 451-456.

- Blank, Jacqueline J., L. Clark, Alice J. Longman, Jan R. Atwood(1989), "Perceived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Cancer nursing, Vol. 12, No. 2, 78-84.
- Castles, M. R, & Murray, R. B. (1979). Dying in on Institution Nurse/patient perspectives. New York : Appleton Century.
- Clyton, P. et al.(1972). The Depression of widowhood. Brit. J. Psychiatry, 120, 71-78.
- Craven, J. And Wald, F. S(1975). Hospice Care for Dying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Oct.
- Cobb(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 Cohen, S. and McKay, G., "Inter personal relationships as buffers of the impact of psychological stress on health", In A. Baum, J. E. Singers, & S. E. Taypo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Hillsdale, N. J. : Erlbaum, 1984.
- Constantino, R. E.(1981). Bereavement Crisis for Intervention for widows in Grief and Mourning. Nursing Research, 30(6).
- D. A. Skinner(1983). Dual-Employed Families : Comping and Adaptation, Doctori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Elizabeth Kübler-Ross(1973). On Death and Dying. New York : The MacMillian Company.
- Elith Lindemann(1976). Grief and Grief Management : Some Reflection. Journal of Pastoral Care. No. 3, 198.
- Franz Borkeu(1965). The Concept of Death : Death and Identity. New York : Wiely press.
- Hampe, S.O.(1975), "Needs of the griefly spouse in a hospital setting", Nursing Reserch, Vol. 24, No. 2, 113-119.
- Harvey C. D. & Bahr H. R(1974). Widowhood, Moral and Affi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97-106.
- Lasgari, A. D & Stehbins, J. A.(1973), The Reactions of Families to Childhood Leukemia, Clinical Pediatrics, 12(4), 210-214.
- Lewandowski, W., S. L. Jones(1988), "The family with cancer", Cancer Nursing, Vol. 11, No. 6, 313-321.
- Ludin, T(1984). Morbidity following Sudden and Expected Bereave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4, 84-88.
- Mc Cubbin et al(1982).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Parkes, C. M., "Determinants of Outcome following Bereavement", Omega 6, 1975.
- Robert, O. Hansson and Jacqueline H. Remondet (1988). Old Age and Wildwood : Issues of Personal Control and Independence, Journal of Social Issuew, 44(3), 159.
- Robert. C. Digiulio(1989). Beyond Widowhood from Bereavement to Emerge and Hope, New York : The Free Press, 59-106.
- Rook, K. S., "Social support versus Companionship : Effects on life stress, longliness, and evaluations by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987.
- Sanders, C. M. (1980). A comparison of Adult Bereavement In Death of a spouse : child and parent. Omega 10, 302-322.
- Str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Switzer, D. K. (1970). The Dynamics of Grief. New York : Abingdon Press.
- Vachon, M. L. S. (1979). Identity change over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 Abstract —

Key Words : widow's experience

A Study on Woman's Experience of Being Bereaved of Her Husband by an Accident

Park, Sung Hark* · Choi, Mi Hye** · Chung, Yeon Kang***

Relatively young widows, who are left with young children by a sudden death of their husbands, will be faced with not only psychological troubles such as individual anxiety and frustration but also the dual burden of playing both father and mother roles in a family. Also, family members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of the family system, the training and raising of family members, and management of the family economy.

In this study, the realistic resources on the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who are bereaved of their husbands by accidents were explo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widows adapt to life in society and live a more positive life by setting a new goals and recovering from a lost and twisted life. 11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loss their husbands and l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tudied. The research took 116 days from December 15, 1995 to April 8, 1996. The method of research was direct interviews. While having interviews with them, the contents were recorded with their consent. The ground theory was that used by Strauss & Corbin(1990) in the analysis of the data.

81 concepts were analyzed and they were subdivided into 22 subordinate categories through the course of the analysis. These were then classified into 9 general categories. In the course

of being categorized, "absurdity" was showed as a core category. The subordinate categories "surprise", "gloom", "grudge", "helplessness", "emptiness", and "loss" were united in the core category "absurdity".

Ominous presentiment, belated notice, death, surprise, gloom, grudge, helplessness, emptiness, loss, the situation of the children, lack of support from neighbors, support from neighbors, mulling over ways to live, choosing a job, strengthening, reinforcement, burden, sadness, smoldering, yearning, overcoming these 22 subordinate categories were re-composed into 9 general ones the husband's death, absurdity, presence of children, existence of support, self-support ability,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self-reinforcement, toilsomeness, and overcoming.

"Absurdity" widows experience was shown in the results of "toilsomeness" and "overcoming" through reaction, confrontation, and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 phenomenon was absurdity, the causal condition of the death of a husband, the presence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support, and the meditated situation of self-support. To solve absurdity,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self-reinforcements were shown resulting in toilsomeness and overcoming.

Through the contrast in the data, the following statements were deduced :

- (1) If the death of the husband is expected,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 (2) The more children she has and the younger she is,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 (3) The lower support she is given,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 (4) The larger self-ability she has, the more actively she will prepare countermeasures.
- (5) The smaller self-ability she has, the more passively she will prepare countermeasures.
- (6) The larger self-ability she has, the weaker self-reinforcement she will preform.
- (7) The smaller self-ability she has, the stronger self-reinforcement she will perform.

* President of Seoul branch, Society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ist.

** Instruct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 (8) The more actively she prepares countermeasures for absurdity, the better she will overcome.
- (9) The more passively she prepares countermeasure for absurdity, the worse she will overcome.
- (10) The stronger self-reinforcement for absurdity she performs, the better she will overcome.
- (11) The weaker self-reinforcement for absurdity she performs, the worse she will overcome.

Thr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ed :

- 1) A study whose object is all family members, and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 of a hus-

band who has lost his wife should be done. These studies can be expected to develop a more refined theory.

- 2)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extended family system and the changes of family culture in Korea, a widow's status and position are apt to be ambiguous between her husband's home and her parent's. Therefore a new study on family culture should be made.
- 3) A continuous study on growing social Self Help Groups should be requested for the widows of this study to re-establish and recover from their twisted and scattered lives.